

사설

출가정신과 분쟁

건전한 상식에 어그러지는 일은 아무리 도도한 웅변으로 정당화를 시키려 해도 오히려 그 이면의 추함만을 드러내게 된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불교 승단 내부의 갈등, 또는 종단 사이의 갈등들이다.

조계종과 태고종 사이의 해묵은 분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결집하면 동원되고 하는 폭력들, 뿌리가 같은 조계종과 선학원 사이의 풀리지 않는 갈등... 이런 일들은 천만 불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선을 넘어서 불교의 위상 자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치부가 되어버렸다. 이런 양상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없다면 우리 나라의 불교는 나날이 망해가고, 결국은 분쟁의 당사자들만 남아서 그들이 그토록 싸워 얻은 텃 밭 빈 사찰을 지키고 있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것은 지나친 상상일까.

물론 분쟁이 있는 이상 그 가운데는 각각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있을 것이고, 절대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더 정당성을 지닌 쪽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분쟁이 계속되는 양상을 보고 있노라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소홀히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잡혀지지 않는 한 원만한 해결은 결코 바랄 수 없을 듯 하다.

우선 분쟁 가운데 있는 불교계의 어느 종단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부처님의 출가 정신, 무소유의 정신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 부처님의 뜻을 펴는 일이라면 피아를 따지지 않고 힘을 보태주고 밀어주는 풍토가 실종되어 가고 있다. '내 종단 또는 내 단체 밑에 들어와서 하라, 내 절에 소속되어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산통을 깨 버리겠다.' 이것이 불교계를 쪼개고 있는 구호가 되고 있지 않은지 걱정이다. 그렇게 되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널리 퍼기 위한 방편이여야 할 종단

이나 단체들이 자체 세력확장을 지상 목표로 삼게되고, 자신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 혈안이 되게 된다.

분쟁의 당사자들은 이제라도 자신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아 어떠한 이상적 세계를 건설하려 하는지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분쟁의 상대방과 또 천만 불자들 앞에 설득력있게 제시해야 한다. 이상적인 미래 불교계의 구도 속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 서로 고감하고 조정하여 공동의 인식을 이루어 눈앞의 이익에 매달리는 추한 모습을 벗어나야 한다.

그런 다음에 서두르지 말고 합법적인 틀 속에서 절차를 지켜가며 구체적인 조정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 그 사이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논리가 끼어들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절차를 준수하는 과정 자체에서 불교의 수승함을 보여야 한다. 불교를 나락에 처박는 폭력사태나, 자신의 위상 확보를 위해선 불교계의 큰 틀을 깨버릴 수도 있다고 위협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마침 3월1일은 삼일절이고 6일은 부처님 출가절이다. 불교계의 해묵은 문제들을 독립의 정신과 출가정신에 비추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일제잔재를 씻기 위해 그간 치뤄 온 노력과 성과를 다시 한번 평가하고, 이제 외형적인 청산을 넘어서 진정한 한국불교를 꽃피우 일제잔재가 자연스럽게 그 그늘 속에 묻히도록 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또 부처님의 출가정신 앞에서 승단내 여러 갈등·분규들에 대해 어떻게 변명할 수 있을지, 앞으로 산통을 깨 버리겠다. 이것이 불교계를 쪼개고 있는 구호가 되고 있지 않은지 걱정이다. 그렇게 되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널리 퍼기 위한 방편이여야 할 종단

동국대

불교종합병원 5월 착공

8백 병상 갖춰 한·양방 협진...재원마련 동참 필요

동국대학교 부속 불교종합병원이 2002년 개원을 목표로 오는 5월 착공된다.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최근 "경기도 고양시로부터 불교종합병원 신축에 따른 건축허가를

를 통지 받았다"며 "고양시 식사동 8천8백여평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2층의 불교종합병원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국대는 병원건설에 총예산 1천2백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병원은 2천9백여평의 대지에 연면적 2만7천여평 규모로 건립, 약 8백병상의 한·양방 협진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노인병과 뇌졸중, 성인병 등의 한·양방 협진이 요구되는 진료를 특성화시켜 독자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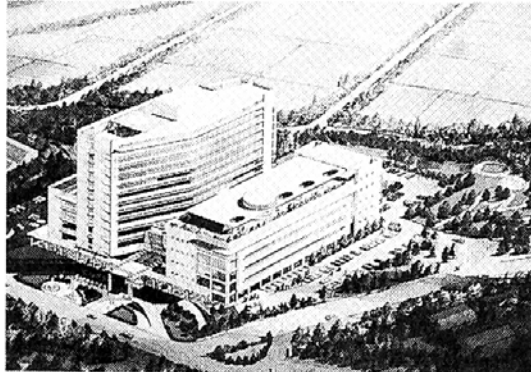
의료체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제 의학전선상 구축 △최고수준의 의학정보실 확보 △우수의료진 및 최첨단 의료장비 확보를 통해 수도권 내 최대의 종합병원으로 자리매김 할 계획이다.

송석구 총장은 "불교정신에 기초한 의료복지 구현을 위해 세심하고 철저한 시설 및 설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국대는 병원건립에 필요한 재원조달과 관련 "우선 동국발전기금의 일부와 수익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예산 5백 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추

가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불교계 종단과 사부대중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일시에 건립되는 동국대 불교종합병원 조감도.

봉축기간 4월1일~5월5일

조계종 봉축위 일정 확정 외국인에게 리프트 배포도

조계종 봉축위원회는 올 봉축기간을 4월1일부터 5월5일까지로 정하고 4월 14일 예기봉점등식, 21일 시암양 점등식, 26일 연등축제, 5월3일 봉축법요식 등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했다.

봉축위는 또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처님 오신날을 전후로 펼쳐지는 각종 행사와 봉축의

의미를 안내하는 리플렛을 제작 보급하고 있다.

봉축위는 올 봉축행사 관련 행사안내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한국관광안내 인터넷 사이트와 총무원이 운영하는 한국불교 소개 사이트에도 등재했다.

봉축위는 또 봉축기획상품 연꽃동자 저금통을 제작 염가에 보급하고 있다. 연꽃동자저금통은 3월부터 6개월간 중간마진이 배제된 6천원에 특별보급한다.

"정신개혁운동 전개 국난극복"

종교지도자협 3·1절 시국선언문 발표

한국종교지도자 협의회(공동대표의장 월주)는 제79주년 3·1절을 맞아 '정신과 물질이 조화된 경신운동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자' 제하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28일 오전 10시 천도교회관에서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강연회 및 시국선언문 발표회'를 갖고 "오늘의 위기를 계기로 우리경제의 체질개선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혁하여 재도약의 전기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자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전 종교계가

합심하여 이를 지원한다 등 구체적인 선언과 관련 경제회복과 민족통일 운동 종교를 통한 정서순화 운동등의 구체적인 사업들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회정각회 신년법회 국회정각회(회장 서석재)는 27일 정각선언에서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 박성규 국회의원의 부총재 박철원 지인민 부총재 김태호 한나라당 의원 등 사부대중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법회를 개최했다. 서석재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나라가 IMF를 극복해 나갈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말했다.

종단협을사업 남북교류위 설치키로

진관스님 석방탄원도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조계종 총무원장)는 2월 19일 종단협사무실에서 제34차 정기총회를 갖고 남북교류위원회 및 한중일 불교우호교류사 무국 연락위원회 설치 등 98년도 사업을 확정했다. 또 진관스님 석방탄원서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제출하고 국난극복법회등을 개최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사업은 △환경보존 소비자보호 인권등 전문

위원회 활동 강화 △경제포럼 및 간담회 실시 △경제살리기 운동 전개 △북한동포지원 활동 전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4억3천여만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했으며 올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종단협의회 주최, 조계종 주관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도 이사회에서는 자비의 전파 부설기관 설치와 내분중인 한국법회등을 제명키로 결의했다.

조계종계단위 의제개혁·52계위 "반대"

율장과 맞지않아...재검토해야 교육원·포교원, "예정대로 시행"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과 교육원(원장 암도)이 추진하고 있는 '대승보살 52계위 포살참회법'과 '사미·사미니 의제개혁'에 대해 계단위원회(위원장 청하)가 제동을 걸었다. 계단위원회는 2월21일 파계사 영산율원에서 회의를 열어 △사미(니) 의제는 율장에 맞지 않고 △52계위 포살법은 율장에 없는 의식이라며 '불가' 관정을 내렸다. 특히 의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계단위원인 철우스님이 밝혔다.

는 "신도포살을 정례화하려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율장을 확대 해석하거나 율장의 부분을 모아 새로운 포살법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포살법이 아닌 서원법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는 뜻을 이날 회의에 참석한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효종스님에게 전했다.

포교연구실은 애초의 계획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포교연구실장 효종스님은 "현대에 맞는 새로운 신도포살법이 요구된다"며 "52계위에 대한 대중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원은 계단위의 새 의제법 시행 반대와 관련 "새 의제의 3월 시행은 흔들림없는 중단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계단위원회의 '불가' 관정이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원의 계단법 해석이다. 계단법에는 의제와 신도포살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계단위원 사이에서도 두 사안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의견제출'에 머문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부 승가대학 학인들이 새 의제 착용을 꺼리고 있고, 52계위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계단위원회의 반대여론이 나와 돌발상황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성운·이은자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현대만평



여의도에 피는 연꽃

737-8881



불치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
유환과 액운으로 고통받는 가정에
건강과 행복, 출세를안겨주는
신비로운 민간요법

명당자리 氣요법

상표등록출원(24461호)

명당자리 요법이란?

- ▶ 묘지요법 (영혼천도 및 묘지 명당 만드는 법)
- ▶ 유해전자파 중화요법 ▶ 찜질 및 목욕요법 등

현대 의학과 민간요법을 조화시켜 종합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극대화 시킨 합리적인 요법이다.

특히,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 만성병, 불치병, 원인 불명의 질환이 거의 대부분 조상의 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이명무 약사가 오링 테스트를 통하여 세계 최초로 확인하여 임상적으로 증명하였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종합적인 명당자리 요법을 통하여 정신병 환자가 호전 반응을 일으키고 치매, 신근 경색증 환자가 양호한 상태로 변화되는 등 실제 임상을 통하여 입증시킨 새로운 학문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며 다가오는 21세기의 의학계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다.

도자기



▲ 조상을 위해 모셔드리는 명당도자기

자매품



★ 명당컵

- ① 명당컵을 TV위에 올려 놓거나 전자렌지, 냉동고 안에 넣어 두면 신비로운 힘의 작용에 의해서 유해전자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② 명당컵에 물을 담으면 건강수가 되고, 그 물을 이용하여 찜질 및 목욕을 하면 혈액순환이 잘되어 피로회복은 물론 피부가 부드러워진다.

■ 묘지요법

풍수지리설을 근거로 하여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명무 약사가 세계 최초로 연구하여 조상의 묘가 잘못되면 실제로 그 후손이나쁜 기를 받아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고 사업실패, 영업부진, 불운과 가정불화, 비행청소년 기타 예고없는 사고등 액운이 따르므로 이런 사람은 지체없이 고인의 묘지에 명당 도자기를 묻어 주거나 유골을 모시면 고통받는 영혼이 완전히 편안한 영혼으로 변화되어 후손들의 질병도 치료되고 당대 발복하여 행운이 따르면서 출세를 누릴 수 있는 불가사의한 치료법이다.(특히, 객사죽음, 화장한 영혼은 한이 많은 영혼이어서 천도가 잘 안되지만 명당도자기 요법으로 100% 천도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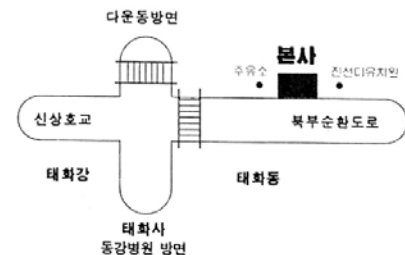
유해 전자파 중화요법, 찜질 및 목욕요법, 건강 식품 요법 등은 위 상품판매에 참고 하시고 상세한 것은 전화 문이나 시중 서점에서 이명무 지음 「신비의 오링테스트와 명당자리 기요법」을 구입해 참조 하시기 바람.

전국 시·군·사찰지사 모집

1. '남여 불문 선착순 계약'

주변에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신도가 없는지? 깊은 노력을 해도 실패만 거듭하는 신도는 없습니까? 스님들을 통해서 그 효력이 100% 발휘되는 명당자리 기요법! 놀랍고 불가사의한 비전! 신비로운 작용, 그 전부입니다.

- 불황에도 투자액의 백배이 보장된다.
- 독점 품목이다.
- 부자에 대한 위험이 없다.
- 신도들의 서원을 100% 충족시킨다.
- 간편한 방법으로 영가 천도는 반드시 된다.



※ 불가비법 원법(眞法) 오링테스트 개인지도 접수함.